

협회의 미래는 협회 스스로의 피땀어린 노력의 산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 희 범

존경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의원 및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001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개혁의 어려움속에서도 말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신 전국 6만여 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력시설물의 성실시공과 전기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오늘 명예로운 포상을 안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121억불의 무역흑자와 157억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함으로써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만, 에너지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고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이 '99년 226억불에서 지난해에는 357억불로 대폭 늘어나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상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을 살펴보면 에너지 해외 의존율은 97%, 석유소비는 세계6위, 석유수입은 세계 4위로서 세계 어느나라 보다 유가변동에 우리경제가 민감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가 등락이 심한 국제유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과 무역흑자 기조의 정착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러한 에너지소비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과 고효율제품 및 절약기술의 보급 등 새로운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만이 곧 국가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배외귀빈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세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환경과 사회체제가 새로운 가치와 창의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경쟁력확보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사상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개편도 바로 그러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시작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는 수급불안, 전기요금 상승, 자산해외 매각으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불안 등 몇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조성과 수급안정 보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사업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부문도 대폭 보강하여 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는 편리성과 함께 잘못 사용하면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책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으며, 전기공사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전력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에 종사하시는 전력기술인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전 회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성취감을 함께 나누었듯이, 올해 제5회 정기총회를 금번 어려움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력기술인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로 뭉쳐 정진한다면, 협회의 앞날은 밝아질 것입니다.

협회의 미래는 협회 스스로의 피땀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협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성과와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의 일터와 가정에 무한한 발전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23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 회 범